완도군, 최고 품질 쌀 생산위한 이앙 연시회

약산면 화가단지 들녘서 농업인 등 60여명 참석

드문 모 심기·병해충 생력 방제 기술도 선보여

완도군은 지난 18일 약산면 화가단지 들녘에서 신우철 군수,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및 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이앙 연시회를 가졌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군에서 브랜드 쌀로 육성 중인 새청무, 조명1호 등 품종별 이앙과 더불어 바다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쌀 재배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드문 모 심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1회 관주 처리 병해충 생력 방제 기술' 등을 선보여 농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드문 모 심기 기술'은 단위 면적당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기존 관행 이앙의 경우 300평 당 모판 30개, 평당 80주 내외를 심는데 반해 드문 모 심기는 모판 10~15개, 평당 50~60주 내외로 심어 생산비 및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모를 드물게 심어 모와 모 사이가 넓어지면서 일조량이 많아져 벼가 튼튼하게 자라 도복이 예방되고, 통풍도 잘 돼 병해충 발생도 감소된다.

또한 방제 횟수도 줄일 수 있다.

'1회 관주 처리 병해충 생력 방제 기술'은 육묘 시 모판에서 1회 관주 처리하는 기술이다.

관행 방제의 경우 연간 3~4회 방제를 해야 하는데 반해 1회 방제 기술은 모판 1회, 본답 1회로 연간 2회 내외 방제로 방제 비용을 절감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연시회에서는 최고품질 단지에서 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쌀, 새청무, 조명1호 신품종, 화판 전시 및 설명과 함께 이앙까지 전 과정을 보여줘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한편 약산면 화가단지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물, 어분·미역 퇴비, 해조류 액비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쌀을 재배하여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해양치유 농법에 대해 연구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소장은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바다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의 먹거리인 치유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여 완도군만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 기자

진도군, 방치된 어선 일제 정비 실시

무조업선 일제 정비로 정확한 통계자료 기초 마련

진도군이 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조업선 등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업허가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등록 말소 처리 없이 장기간 항·포구 방치된 어선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 무조업선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기간(1년 이상) 조업 실적이 없는 방치(노후) 어선, 휴업신고 등 미이행 어선, 멸실·침몰·노후·파손된 방치어선, 장기 미수검 어선 등이다.

군은 읍·면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직권 말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제 정비를 통해 허가·면허 등 효력 상실과 방치된 어선 등 총 143척을 등록 말소 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일제조사 결과 말소 대상 안내와 최고장 발송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어선등록 말소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어선 등록 말소와 일제 정비 등을 추진, 정확한 어선 등록 통계 자료를 작성해 정책 수립의 신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女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교육생 모집

우리 쌀 활용 실습·이론 병행

장흥군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농업인 전문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021년 장흥군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우리 쌀 활용 교육생을 모집한다.

우리 쌀 활용 교육은 장흥군에서 재배된 쌀을 이용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쌀 활용 전문교육으로, 신세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쌀 마들렌, 다쿠아즈, 에클레어 등의 실습 교육과 쌀 활용 가공기술 이론 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장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수강 신청서와 일정표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준비해 5월 27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61-860-6522)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교육환경이지만 여성농업인의 재능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 농번기 인력난 해소 지원 '총력'

직업소개소 대표 간담회…영농 인건비 상승 등 해소 방안 머리맞대

해남군이 농번기 영농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내 등록 직업소개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 열린 간담회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과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역 인력 공급을 맡고 있는 직업소개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56개소 등록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자제해 적정 인건비 및 알선수수료를 준수하고 지역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 직업알선행위로 인해 인건비 상승이 주도되고 있어 미등록 직업소개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공급 방안에 대해 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역의 인력문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 대처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불법적인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해남군은 공직자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의 농촌일손돕기에 조기 착수해, 통상 1차례 실시되던 공직자 농촌일손돕기를 2~3차례로 늘리고, 기간도 오는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도 농번기 기간 동안 중단된다.

앞서 군과 읍면, 농협 등에 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촌일자리 참여자(자원봉사자) 모집·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전남 인재개발원 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10~20% 할인 판매

강진군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강진 도암면 소재/이하 도 인재개발원)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도 인재개발원 직거래장터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직접 참여해 파프리카, 생표고버섯, 목이버섯, 잡곡, 꿀 등 다양한 농특산물과 강진군 쌀귀리 스무디밀, 강진 책빵 등을 시중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지난 14일 첫 개장한 행사에서는 10여 개 업체, 30개 품목을 판매해 2백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파프리카, 생표고버섯 등 신선 농산물의 수요가 높았다.

군은 도 인재개발원의 교육일정에 맞춰 직거래장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매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